

월화드라마 하면 MBC '검법남녀'



'검법남녀 2' 제13·14회

MBC TV 월화극 '검법남녀'가 KBS 2TV 월화극 '퍼퓸'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렸다.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4일 밤 8시에 방송한 '검법남

녀' 제13·14회는 전국평균시청률 7.8%(13회 6.8%·14회 8.7%)를 기록했다. 18일 6.9%(11회 6.1%·12회 7.7%)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올랐

2주 연속 시청률 1위 지켜 KBS 2TV '퍼퓸' 따돌려

'검법남녀'는 지난 주에 이어 월화극 1위를 지켰다. 이날 밤 10시 방송한 '퍼퓸' 13·14회는 5.2%(13회 4.3%·14회 6.1%)를 찍었다. 18일 5.8%(11회 4.8%·12회 6.7%)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SBS TV '초면에 사랑합니다' 29·30회는 3%(29회 2.8%·30회 3.1%)에 그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즌 마지막회를 장식한 '오만상 사건' 중 모델에서 피살된 정희주의 구강에서 오만상의 DNA가 검출됐고, 죽은줄 알았던 오만상이 살아있음이 드러났다. 국과수는 지난 시즌 오만상 부검

당시 대퇴골에서 추출한 DNA를 토대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그가 살아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스스로 사건을 뒤집었다. 법의학자 '백범' (정재영)은 오만상의 골수를 타인의 대퇴골에 직접 주입해 생착시킨 뒤 대퇴골을 제외한 다른 곳에 유전자가 남지 않게 시신을 탄화시켜 유전자를 바꾼 것으로 추측했다. 유전자 조작을 위해 단시간 다량의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특수 도구까지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 의문의 사건으로 종결된 오만상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더 다가갔다. 뉴스스

“딸은 엄마 닮고 아들은 아빠 닮았네”

축구스타 송중국·탤런트 박인선 딸 송지아 근황 공개



송중국 부녀는 2014년 방송된 MBC TV 예능물 '아빠 어디가?'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박인선과 송중국은 결혼 9년 만인 2015년 이혼했다. 최근 박인선은 SNS에 “6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구가 됐다”며 “어렵고도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에 고통이 저를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었고 그는 이제 제가 진짜 사랑을 알게해준 사람이다. 사랑은 우주 같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 꼭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쉽고도 #어려운 #송중국 #남자사랑친구 #고통 #성숙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뉴스스

송중국 부녀는 2014년 방송된 MBC TV 예능물 '아빠 어디가?'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박인선과 송중국은 결혼 9년 만인 2015년 이혼했다. 최근 박인선은 SNS에 “6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구가 됐다”며 “어렵고도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에 고통이 저를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었고 그는 이제 제가 진짜 사랑을 알게해준 사람이다. 사랑은 우주 같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 꼭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쉽고도 #어려운 #송중국 #남자사랑친구 #고통 #성숙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뉴스스

김종국, MC 자리 굳힌다...엠넷 '더콜 시즌2'

가수 김종국(44)이 엠넷 새 예능물 '더 콜 시즌2'를 진행한다. '더 콜 시즌1'에는 아티스트로 출연해 가수 황치열(37), 태일(25), 그룹 UV(유지·유세운) 등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MC로서 진행 실력을 뽐낸다.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부터 세 시즌 연속 MC를 하며 안정적인 재치있는 진행을 한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작진은 “김종국은 많은 프로그

램에서 검증된 MC다. 최고의 가수로서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더 콜'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며 “뮤직 패밀리를 위한 특별한 역할도 하는데, 방송에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더 콜'은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가수 윤종신(50)과 듀오 '바이브'의 윤민수(39), UV, '씨스타' 출신 소유(27)가 출연을 확정했다.

박보검, 아시아 팬 5만명 챙겼다

9개국 미팅 성료

탤런트 박보검(26)이 해외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5일 소속사 블러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보검은 1월26일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태국·싱가포르·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대만·필리핀 등 아시아 9개국에서 팬미팅을 열고 5만여명을 만났다.

박보검은 매 공연에서 현지 곡을 노래했다. 다양한 비공개 영상과 선물로 호응을 누렸다. tvN 드라마 '남자친구' (2018) 명장면을 팬들과 함께 따라하기도 했다.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 (감독 안상홍)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5)로 스타덤에 올랐다. 차기작은 영화 '서복' (감독 이용주)이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띠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녀간의 문제는 슬기로운 지혜로 조율해 해결함이 좋겠다. 미래에 자기 모습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2, 5, 9월생 자존심만 내세우다공은 탐 무 너질 듯. 주위 사람들말 귀담아 들을 것.



▶소띠
멀리 떠나지 않으면 식구가 누는 격이다. 굶어 부스럼은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힘을 받을 것. 1, 5, 7월생 타인에 의해서 자리 변동이 생길 듯. 7, 8, 9월생 애정과 자녀 문제로 근심 생길 수. 많은 대화가 특히 필요할 때. 북쪽이 길함.



▶범띠
가정에 경사가 있을 운이다. 어렵게 진행되었던 일들이 쉽게 풀릴 듯하니 서두름 없이 추진하면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다. 7, 8, 9월생 임신에 지나친 신경 쓰지 말고 웃음을 즐겨라. 구설수 있다. 2, 5, 7월생 서,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토끼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새롭게 해야겠다. 3, 7, 9월생은 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다. 구설 조심해야 될 듯. 사랑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닌 만큼 꼭 잡아야 한다.



▶용띠
근면 성실한 태도로 주위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는 별 소득이 없을지라도 꾸준한 노력 끝에 번성할 운. 1, 3, 5월생은 겉멋 좋아하지 마라. 하던 일도 중단하게 하며 구설이 생기게 되는 색이다. 7, 8, 9월생 서,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뱀띠
고집대로 일 처리하지 말고 동료와 함께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3, 5, 9, 11월생 직장에만 신경 쓰는 충성도 좋지만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할 때. 들뜨게 잡으려다 짐트끼까지 놓칠 염려 있었다. 7, 8, 9월생 금전 주의.



▶말띠
혼사 시기를 놓쳤다고 상대에게 맹목적으로 접근하면 백번 실패다. 손해 봐도 좋다는 진실한 마음이 전달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7, 9, 12월생 생각으로는 금방 될 것 같으나 늦어질 듯. 인내하라. 꼭 성사되어 환한 미소 짓겠다.



▶양띠
계획을 차분하게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 7, 9월생 포부만 가지고는 대입이 불 수 없다. 8, 9, 10월생 동업한다면 상대방이 쥐, 범, 말띠일 경우 처음은 좋으나 끝에 가서 이익만 노린다. 심사숙고해야만 될 때.



▶원숭이띠
생각한 것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최고라는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다. 7, 8, 9월생 자기 관리를 잘해야만 오래도록 인기 누릴 수 있다. 동업자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나 역이용해서 상대 울리지 마라. 3, 9, 11월생 길조.



▶닭띠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되나. 당신은 오히려 손해보게 된다. 7, 8, 9월생 속마음까지 모두 주는 건 금물. 동업을 삼가고 동, 남 쪽 사람을 경계하라. 별거하고 있는 부부 새로 만나는 기쁨 있을 듯. 5, 9, 10월생 매대는 조금 기다려라.



▶개띠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하나 뜻대로 되지를 얹아 진퇴양난에 놓인다. 헛된 요행보다는 실력배양에 힘써라. 1, 3, 6월생 붉은 계통 옷을 입고 동쪽사람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었다. 밭으려고만 말고 갈는 자세를 키워라.



▶돼지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 조언 수렴해서 처리하라. 구설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근심함이 좋겠다. 한 마음으로 두 사람 섬기려니 눈치 싸움에 시달리며 피곤하구나. 8, 9, 10월생 욕심만으로 모든 것 해결되지 않는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